

## 고대 마야 사회, 정치 제도 속에서 대가족 체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 사회 계급 존재 유무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

송영복(경희대학교 강사)

### 글의 순서

- I. 마야 사회계급구조에 관한 회계의 고전적 시각
- II. 경제적 부(富)와 사회계층간의 관계
- III. 주거지역과 사회계층간의 관계
- IV. 정치구조와 사회계층간의 관계
- V. 할라치 무이낙을 왕(王) 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 VI. 결론

이 연구는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마야 사회의 왕, 귀족, 평민, 하층민으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계급구조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설명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시작된다. 과연 실제로 이러한 사회계급구조가 존재하였는가?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담 찾가가 이 글을 통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는 중심 주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야 사회에는 엄격한 사회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이는 일반적 의미의 계급(階級)사회는 존재하지

\* 이 글은 필자의 박사논문을 축소, 수정, 보완한 것에 보태어 일부 의견들에 나름대로 발전된 생각들을 새롭게 계진 하였다. 특별히 정치 경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나 학위논문에서 다룬 일반 마야 사람들의 종교적인 역할과 의미 그리고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사회적 계층분석 요인 등은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않았으며 정치, 경제적 특권을 배경으로 한 계층(階層)구조 역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장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적인 면 중의 하나로서 이 논의의 전반을 이끌어 가는 기본 소재는 16, 17세기에 쓰여진 아메리카 식민지시대의 원주민 관련 사료들이다. 마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가능한 모든 사료의 점검과 독서가 선행되었으며 아울러 고고학, 문화 인류학, 언어학적 연구의 성과들도 상당 부분 검토되었다.

접근 방법 면에서 이 글은 이전의 마야 사회 체제 연구의 방법과는 달리 일반 평민의 삶에 관심을 두었다. 즉 사회 기본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참여를 하며 이들의 경제적 환경이 사회계층 구조에 어떻게 조율되는가를 관찰하였다. 한 사회에서의 일반 평민들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의 상대적인 지위, 즉 사회 계층간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려 하였다.

## I. 마야사회 계급구조에 관한 학계의 고전적 시각

고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마야 사회는 엄격한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계층을 구분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하라치 우이닉(Halach Uinic)이라는 왕이 존재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에 왕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고위 행정관료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장거리무역의 발달로 인한 부의 축적과 이에 따른 상인계급의 점진적인 상류계급 진입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개의 상류계급 아래에 평민들이 위치하고 다시 그 아래에 노예를 포함한 하층계급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 물론 학자에 따라 그 분류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 정설로 인정된다. 이러한 계급들은 경제력과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형성, 유지된다고 하는 생각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간을 제시해주고 있

다. 대략적으로 한 고대도시의 중앙신전지역을 발굴하여 그곳에서 가치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밀집된 대단위 건축물들이 나타나면 그곳을 상류계급의 주거지역으로 생각하였고, 다른 지역을 발굴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유물들이 나오는 한편 건축물들의 질과 밀집도가 낮다면 거기에는 하층민들이 살았다고 말하여 왔다. 즉 삶의 질에 있어서 상류계급은 도시의 중앙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린 반면 대부분의 일반 평민들은 도시의 외곽에서 생산 노동에 종사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설명이다. 바르가스는 유카탄반도의 뚜룸(Tulum)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의견을 확인하였다(Vargas, 1995: 167). 고전기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과테말라의 우악삭툼(Uaxactún)에서의 아세베도의 연구 또한 동일한 이론적 선상에 놓여있다(Acevedo, 1993: 84). 이밖에도 멕시코 유카탄(Yucatán)반도 마야판(Mayapan)의 스미스(Smith, 1962: 21-47), 과테말라 끼체(Quiche)지방의 칼막(Carmack, 1979: 25) 온두라스에 위치한 꼬판(Copán)유적지에 관한 레벤탈(Leventhal, 1988: 69)의 연구 등도 역시 같은 논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같은 도시 안에서의 지역에 따른 물질적 부(富)의 불균형이 사회 계층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물질적 부유함이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과 각 도시 내에서의 지역에 따른 물질적인 불균형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두개의 커다란 전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킨츠의 논문에 표시된 도식적인 이해는 극단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Kintz, 1978: 66, 9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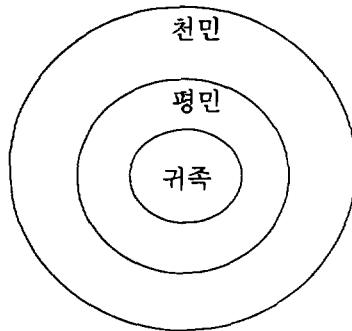


도표 1: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적 거주지역설

이러한 고고학적인 견해와 아울러 마야 사회체제의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료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란다 (Landa, 1986: 28)와 꼬골유도(Cogolludo, 1842: 328)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란다의 사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n medio del pueblo estaban los templos con hermosas plazas y en torno de los templos estaban las casas de los señores y de los sacerdotes, y luego la gente más principal, y así iban los más ricos y estimados más cercanos a éstas y a los fines del pueblo estaban las casas de la gente más baja”(Landa, 1986: 28).

마야의 정치나 사회를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역사가자들의 의견도 이러한 주장들의 근간이 되어왔다. 로이스(Roys, 1946)의 40년대 저술들은 현재까지도 거의 이 방면에서 채고 없이 인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시키는 신진 학자들도 결국 수직적 상하구조를 전제로 한 사회구조의 이해라고 하는 로이스의 고전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파테말라의 고원지역을 연구의 주된 소재로 삼았던 칼막 (Carmack, 1979)이 이 방면에 끼친 공헌도 손꼽을만하다. 그는 동적인 면이 강조되는 최고지도자들과 일반 평민들의 관계를 상당히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의 결론도 엄격한 사회계층구조의 확인이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

다.

마야사회구조의 연구를 거론할 때, 비록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 역사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빈약한 사료비판과 논리의 비약이 많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빌라 로하스(Villa Rojas, 1985)<sup>1)</sup>의 연구들도 이 방면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또한 이들과 사회계층을 보는 관점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결국 이렇게 고고학과 사료연구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마야의 엄격히 세분화된 사회 계급체제를 설명했고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마야 역사 전반을 다루는 대부분의 저명한 학술 서적에 적용되었다. 코우(Coe, 1990), 톰슨(Thompson, 1985), 루스(Ruz, 1992), 몰리(Morley, 1991), 쉘리(Shilley, 1990) 등의 저술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계급사회이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사회계급형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인 면들을 마야의 사회 현실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이것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다루겠다. 제일 먼저 경제적인 요인이 마야사회 계층형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관찰해 보자.

## II. 경제적 부(富)와 사회계층간의 관계

제일 먼저 위의 기존 학설들이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물질적인 부유와 사회계층간의 비례적인 관계, 즉 상류계층 사람들이 하층민에 비하여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자. 동서양의 경우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부의 가장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의 소유였다. 그렇다면 마야의 경우 토지의 소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식민지 정복

---

1) 이 책은 저자의 193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중요한 저작을 모은 논문집이다

당시의 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많은 사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마야 사람들은 토지소유개념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거나 토지는 공동의 소유였었다고 한다. 로페스 메델(López Medel)은 이렇게 적고 있다. “...y los campos largos y extendidos, comunes para todos”(López Medel, 1990: 221), 란다(Landa, 1986: 40)나 로페스 꼬골유도(López Cogolludo, 1842: 328) 역시 동일한 증언을 한다. 사료들을 분석한 연구들도 토지는 공동의 소유였고 다만 경작권을 각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Quezada, 1993: 40). 이러한 토지의 공유개념은 현재의 마야 원주민들에게서도 그 전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토지의 개인소유개념이 현대 마야 원주민사회 안에서 정착되지 않았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에히도(Ejido)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멕시코의 근, 현대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사유재산과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관찰해 보자.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마야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재산소유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그러한 개념과 운용은 사회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전체적인 배경보다는 경제적 부(富)와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두가지 접만을 언급하겠다:

첫째, 각종 정치단위들의 우두머리나 행정원들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재력(財力)은 전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복이전 사회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전통 촌락에 남아 있어 유카판지역 전통마을들의 족장선출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Rivera, Marie, 1976: 52).

둘째,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용자산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고학적 연구와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한 예로 16세기 정복 초기 식민지 지방장관들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각 원주민 촌장들의 재산목록이 일반 농민들과 다른 것

이 없다는 것을 전 마야지역을 통해서 거의 공통되게 볼 수 있다 (Quezada, 1993: 286). 마야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뽀뽀부를 기록한 끼체지방의 히메네스 신부의 기록은 이러한 점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 estos pobres aunque sean ricos, aunque sean Alcaldes gastan la misma llaneza que los demás"(Ximénez: T,1, L,P., C.XXXVI, 106) 또한 온두라스에 있는 마야 고전기의 최대 유적지중의 하나인 꼬뽀(Copan)에서 도시중심과 외곽지대에 걸친 대규모의 고고학 연구가 8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시내,외곽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부를 누렸으며, 심지어는 식량이 모자라는 시기에는 시 외곽에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내중심의 관료나 지도자들 보다 더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arquez, 1996: 10-11).<sup>2)</sup>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자(富者)라고 하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유카탄 마야어는 끼리스(kiliz)이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6세기에 만들어진 마야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모똘의 사료에 보면 이 단어의 속뜻은 늙은이(viejo), 노인(anciano)이고 그 중에서도 가족이 많은 부자(el hombre rico que tiene mucha familia)라고 쓰여져 있다(Calepino de Motul, 1995: 423). 결국 이를 풀이해 보면 부자의 뜻은 가족을 많이 거느린 노인이란 말이 된다. 과테말라지역의 마야연구(Carmack, 1979: 30-31)와 유카탄 지역에서의 사료와 언어학적인 접근(Okoshi, 1992: 201-202)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물질적인 부(富)의 많고 적음이 사회계층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엄격한 사회계층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러한 점들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사회계층구조는 물질적인 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칼막의 말을 들어보자: "...las diferencias en la posición social de los

2) 이 연구의 결과는 기생충이나 기타 뼈의 보존상의 환경요인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lanes, no se demuestran con ningún signo exterior, como por ejemplo mayor riqueza de sus miembros individuales.”(Carmack, 1979: 56).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토지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부의 축적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마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는 어떠한 사회, 정치적 특권을 구성하고 나아가 계층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사회계층 형성이라는 발상은 마야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겠다. 이는 서양적 사회계층 분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물질소유의 많고, 적음이 마야사회에서는 같은 의미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들의 사회계층 연구에 있어서의 중요한 시작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 Ⅲ. 주거지역과 사회계층간의 관계

이번에는 기존 학설이 말하고 있는 부자 혹은 상류계급들이 도시의 중심에 살았고 가난한 사람, 하류계급들이 도시 외곽에 살았다고 하는 기존의 틀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이제까지는 도시의 중심지에 장엄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귀족과 제사장들이 특권을 누리고 살았으며 평민이나 노예들과 같이 사회적 중요성이 적은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라 도시의 외곽지대에 살면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마야의 사회계층에 따른 촌락구조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에 귀기울여 보면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배경으로 한 촌락구조와 그 사회계층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경제적인 자급자족 촌락중심구조와 이의 정치적인 독자운영에 주목하게 된다.

기존의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장들은 그 연구의 대상을 도시



중앙 신전 지역을 주로 하였고 외곽 주거지 연구에 관심이 적었었다. 그러나 차츰 도시의 외곽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현상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프레이델(Freidel)과 사브로프(Sabloff)에 의한 꼬수멜(Cozumel)이라고 하는 유카탄 동부해안에 인접한 섬에서의 연구다(Freidel, 1984: 376-377). 이 섬에도 물론 두드러진 중앙 신전 지역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섬 전체에 대한 대단위 지표조사와 부분적인 발굴 작업의 결과에 따르면 섬은 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수많은 정치단위들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단위지역에서 출토되는 도구나 장식품들로 대표되는 경제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의 분석에서 그들은 기존 이론과의 타협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나 값비싼 물건들이 전체 섬 지역에 고루 분포된 현상을 무역의 중심지였던 관개로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생기게 되어 값비싼 물건들이 대중화(vulgarizado)되어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붙였다. 즉, 꼬수멜 사람들은 섬이라는 무역에 이로운 조건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따라서 전체 주민 모두 다 값비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을 누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마야의 상업과 무역의 성격은 그렇게 간단한 해석에 기초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벨리세, 과테말라, 유카탄지역 등 마야 전지역에서 - 꼬수멜의 결론과 틀린 각기 다른 이름대로의 해석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 결국은 같은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벨리세의 썬따리따 꼬로살(Santa Rita Corozal)에 대한 연구에서 차스(Chase)도 비록 그 해석에서의 시각적인 차이는 보일지라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전체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나타난다. 특히 그의 연구는 무덤의 발굴에 역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Material remains associated with Type 1 and Type 5 constructions, with the exception of ritual items, do not necessarily

suggest differing wealth in material goods. The archaeological situation may in fact be taken to indicate the existence of a continuum in classes below the elite. Such a continuum might indicate that commoners could accumulate wealth to the point that they were difficult to distinguish materially from the elite.

While burials at Santa Rita Corozal range from individuals with no associated items to individuals accompanied by a wealth of material goods, this range may not be indicative of class distinctions.

This suggests either nonstandardized burial practices or much variation in the status and wealth of individuals living within any locale(Chase, 1985: 356).

치아파스주로 대표되는 마야의 고원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알바레스(Alvarez)와 로우(Lowe)가 마르가리따(Margarita)에서 위에서 예로 든 것들과 일치하는 현상들을 만나게 된다(Alvarez: s/p). 이 밖에도 스캔보러지(Scanborough, 1991: 175)가 벨리세의 세로(Cerro)에서 아놀드(Arnauldo, 1992: 50)가 과테말라의 라비날(Rabinal)지역에서 바레라(Barrera: 393)가 멕시코 유카탄의 옥스말(Uxmal)에서 이와같은 주장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남부, 중부고원, 북부 유카탄 등의 전지역에서 도시의 중앙과 외곽의 경제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앞에서 말한 고전적인 주장에 바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전까지의 작업들은 중앙 신전 지역에 국한된 것이 많았었다. 그러나 차츰 대규모 유적지의 중요 부분 발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80년대에 들어서 도시 외곽과 평민들의 삶에도 서서히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되면서 여러 마야의 도시들에서 넓은 지역에 걸친 균등한 지표 조사나 발굴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외곽지역에서 사용 하였던 여러 가지 도구나 장신구들이 중앙 신전 구역에 비하여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들어 기존 학설을 이미 앞질렀다고 말할 수 있다. 경

제적인 평등이 있었던 원인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는 있으나 도시중심으로 부가 집중되었었다거나 그곳에만 상류 엘리트 계급이 살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퇴색된 학설이 되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한 고대 마야인들간의 경제적인 '평등'을 주거지역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제공한다. 이미 우리는 경제적인 부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곳에서는 주거지역의 차이가 사회계층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당히 동일한 경제능력을 가진 집단들이 중앙 신전 구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경제력을 가지는 집단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 IV. 정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회계층구성 요인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층구조 결정에 어떻게 작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정치구조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 단위들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정치단위들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알아보자. 그리고 그러한 정치구조가 권력과 계층구조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되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꾸츠떼엘

이제까지 보아 왔던 경제적인 부를 공유하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단위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촌락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에스빠냐어의 바리오(barrio) 혹은 빠르셀라(parcela)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원주민의 용어도 제각각이었다. 유까탄반도에

서는 이를 꾸츠테엘(Cuchteel)<sup>3)</sup>이라 불렀다. 앞장에서 프레이델과 사브로프가 말한 자치적인 정치단위들이 바로 이 꾸츠테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꾸츠테엘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먼저 도표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가족 단위들은 꾸츠테엘(Cuchteel)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반(半) 독립적 단위를 형성한다. 이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①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단위들의 모임으로서 가족대표를 통해 정치참여를 한다.
- ② 독자적인 마을의 이름을 가지며 가족 중심적 농업을 행하는 자체토지를 경작한다(토지는 공동소유이며, 각 경제활동단위들이 경작권을 행사한다).
- ③ 행정과 군사유지를 담당한다.
- ④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한 자립적 경제활동을 한다(Quezada, 1993: 31-36).

결국 이 꾸츠테엘은 모든 영역에서 고대마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단위이다. 여기에서 이들이 반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급 자족적인 운용을 기본으로 하되 잉여생산물에 대한 교류가 타지역과 활발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중거리 무역으로 유카탄반도의 경우 소금,

---

3) 꾸츠테엘의 뜻은 모틀 사료(Calepino de Motul)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subdito o vasallo que está debajo del mando o gobierno de otro; parcial de gente de un pueblo que está a cargo de alguno"

그러나 *cuchteel*의 언어학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먼저 이 단어는 독립적인 뜻을 가지는 *cuch*라는 어간과 *teel*이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uch*는 무수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무, 책임, 통치하다라는 뜻을 이 단어에 적용할 수 있겠고 *teel*은 어미로 사용될 때 1년 2년과 같이 해를 셀 때 쓰는 마야어 특유의 접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어원적 의미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마지막 어미의 이분이다. 즉 *te*와 *-el*로 나누어 보면 *te*는 나무이고 *-el*은 어간에 해당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cuchteel*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임무 혹은 책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란 마야의 조형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Calepino de Motul: 144; Diccionario Maya: 344-345, 782).

꿀, 장거리 무역으로는 전 메소아메리카지역과 그 인근에까지 흑요석과, 카카오, 도자기 등이 교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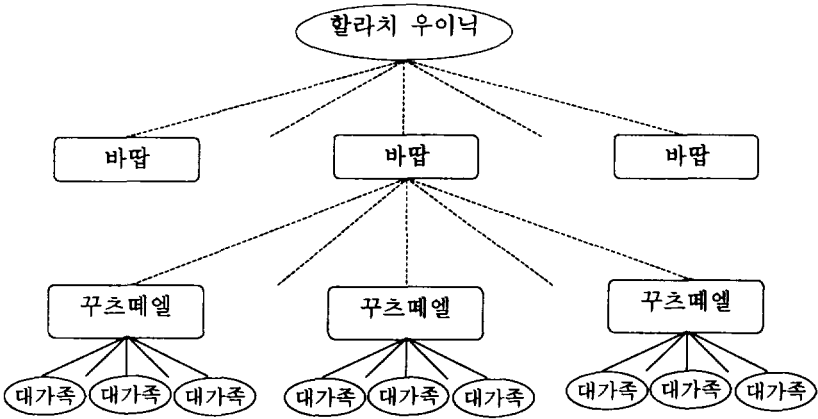


도표 2: 마야 정치체제의 구성 (꾸츠까발)

## 2. 꾸츠떼엘간의 연합

반 독립적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는 각 꾸츠떼엘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동맹의 형태를 나타내는 바따빌(Batabil: 꾸츠떼엘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씨족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정치단위)<sup>4)</sup>이나 꾸츠까발(Cuchcabal: 꾸츠떼엘과 바따빌 그리고 바따빌들

4) Batabil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Batab과 -il로 먼저 나눌 수 있다. Batab은 일반적으로 촌장(cacique)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그 원형은 도끼라는 뜻을 가진 baat에서 나온 듯 하다. 보통 많은 마야의 조형예술에서 촌장들의 모습이 그들의 도끼를 형상화한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batab의 뜻은 hombre de hacha라 할 수 있고 그 해석은 '도끼를 가진 사람' 혹은 보다 의역을 한다면 '도끼 장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능적인 해석은 촌장이다. 도끼가 권력이나 권위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정확한 연관 관계는 썩 명확하지 않다. 접미사인 -il이 붙어 체제 혹은 제도라는 뜻을 부여한다, 즉 batabil을 '촌장 체제' 혹은 '촌장 제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Bocabulario de Maya Than: 160, 384; Diccionario Maya: 39, 40).

로 이루어지는 연방체적 부족국가의 형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sup>5)</sup>에서 각 꾸츠메엘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 장거리 무역, 종교의식 등을 관리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결국 실질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꾸츠메엘의 상위 정치단위들은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모든 꾸츠까발들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결속력의 긴장과 이완이 거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마야의 고전기(기원후 150~900년)에는 후고전기(기원후 900~1521년)에 비해 정치, 사회적 연맹의 활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간의 높은 상이성을 엿볼 수 있어서, 에스빠나인들의 침략전야의 유카탄반도에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동맹의 강약(強弱)유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Roys, 1943: 38). 또한 과테말라 고지의 까체족과 깡치궤족도 정복 당시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였던 것처럼 보여지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형태의 독립된 정치 단위들이(Ximenez: 103) 외래 침략자들 앞에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적인 대응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일 것이다. 결국 동시대에 나타나는 체제의 다양성은 마야 정치형태의 지역적인 자치성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자치적인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 3. 꾸츠메엘의 연합은 강력한 중앙 군주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꾸츠메엘의 상위 연합 단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위에 언급한 점

---

5) Cuchcabal 은 그 어원을 cuch와 cabal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uch는 이미 설명한 데로 임무, 책임, 통치라고 할 수 있고 cabal은 하나의 영역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은 하나의 무리를 이룬 정치적인 단위라는 의역을 가능케 한다(Diccionario Maya: 278, 342-344).

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꾸츠메엘의 연합인 바파빌이나 그 위의 꾸츠까발 등에서 권력의 중앙 집중적인 성격이나 전체적인 강력한 대표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테말라 끼체지방의 마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자치적인 성격은 칼막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대표자들은 주민들과 상의하여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Los líderes de la población rural eran las cabezas de los distritos o parcialidades (*Utzam Chinamital*, cabeza de distrito) y los ancianos (mamaib). Como los hombres de más experiencia, ellos tenían el derecho de solucionar todos los problemas que surgían dentro de los linajes, actuando siempre en consulta con los señores de los días del calendario, y mediante consenso entre ellos mismos(Carmack, 1979: 31).

최근에 대단위로 이루어진 유카탄반도 서부지역의 고고학적인 연구의 결과들도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중앙집중적인 하나의 세력이 없이 서로의 계약적 동맹에 의한 자치권의 보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베라스케스와 로베스는 61개의 작은 분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냈다(Velázquez: 97).

유카탄반도의 정복사는 또 다른 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곳을 정복한 에스빠냐의 몬테호(Montejo) 장군은 몇개의 국가(꾸츠까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적인 작은 씨족단위들과 일일이 싸워야 했던 것이다(Rivera Dorado, 1995: 150).

이제까지 많은 예를 들어가며 누누이 설명한 것은 꾸츠메엘이나 그 상위기관들이 정치적인 힘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각 꾸츠메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정치의 가장 중심이자 변함없이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단위라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검증해 보려고 하는 사회계층과 이 문제와는 어떤 상호 관련이 있는 것인가? 대단위 행정단위의 장들이 마치 절

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커다란 특권을 구가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들 수 있다. 바따빌이나 꾸츠까발과 같이 중앙 정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하한 의미에서도 그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모든 권력은 각 씨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 과장일 수 없다.

#### 4. 강력한 대표성의 부재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는 꾸츠떼엘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꾸츠떼엘이 바로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었음을 상기하자. 그러나 꾸츠떼엘 또한 힘의 집중이나 강력한 통합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꾸츠떼엘 내부에서는 각각의 가족대표들(일반적으로 노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그의 전체 대표 역시 한 씨족의 대표 즉 가족대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Villa, 1985: 30-31). 즉 꾸츠떼엘의 우두머리는 우리 나라로 한다면 종친회의 회장과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야지역에 뚜렷이 나타나는 정치,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강력한 대표성의 부재는 에스빠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인정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하여 정복이후 원활한 식민지 행정을 위해 이 땅에 에스빠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존재해야하는 마을 대표자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했고, 원주민들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정복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다(Carmack, 1979: 38). 그러나 혹독한 식민지정책도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구조나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집단 철학이나 윤리를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하였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집단적인 의사토론과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표성의 부재는 아직까지도 마야의 전통 마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Lenkersdorf, 1996: 81). 현재까지도 마야의 여러 지역에서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인 남



자로 구성되는 가족장(家族長)회의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기관인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위에 열거한 각 정치단위의 우두머리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장회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꼭 세습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투표나 운번제의 방식을 통해서 후임자를 뽑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친인척의 대표인 행정관리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대부분의 단위 장(長)들과 고급 행정원들은 각 주민들과 실질, 상징적인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다. 모든 노인들은 그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되는 정치,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고 행정기구의 대다수 구성원을 이루며 이러한 고령에 따른 특권과 중요성은 어떤 씨족이나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사회 지도부와 주민들 사이의 독립된 혈연관계를 통한 계급의식 형성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중요한 특권 가계(家系)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의 맏아들과 종갓집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다. 즉 이들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특권층은 아닌 것이다.

## 6. 단위 가족이 권력의 중심이다

결국, 단위 가족들이 실질과 형식적인 면에서 정치적 힘을 운용하는 단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각 정치단위의 최고지도자들이 독자적 권력이나 특권을 전혀 갖고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씨족 또는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존중과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 자체 위원회와 하부 정치단위 장(長)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영향권을 행사하였고, 만일 최고지도자나 각 단위

장(長)들이 비도덕적 행위나 주민들의 의사에 상반되는 일을 집행하거나, 혹은 주민들에 대한 예우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가족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게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Las Casas, 1967: 501). 이러한 예는 사료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마을의 공동 사업, 안녕과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두머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간에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아무런 이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카탄반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인 엑발람(Relaciones de Ekbalam: 138)이나 칠람 발람(El Libro: 57) 등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자세히 적고 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만이 그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히메네스 신부는 이들의 정치형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표성의 부재와 가족장들의 강력한 힘 등 자세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묘사하였는데 실로 우리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El gobierno que tenía era éste; había un Rey Supremo del Reino que se sucedía de padres a hijos, como esta dicho, y aunque no era tan absoluto, se le guardaba tanto decoro y respeto que lo tenían cuasi por deidad. Este tenía los 24 Señores que se han dicho que eran los grandes del reino, con estos consultaba y confería todas las cosas, chicas o grandes y con el parecer de la mayor parte se ejecutaba. Estos veinticuatro Señores como tenían repartidos en sí todo el Reino cada uno era Señor de una parte de él a quien conocían como a tal todos los pueblos de su distrito. A estos acudían todos los Señores de cada pueblo que cada uno tenía su Cacique y este era como cabeza de aquel pueblo; pero no era tan absoluto que para todo lo que se había de hacer y ordenar, según los Señores grandes mandaban, lo pudiesen ejecutar por sí, sino que éste juntaba las cabezas de las familias a quienes daba cuenta de todo y con acuerdo de todos se ejecutaba(Ximénez: 104).

## 7. 언어에 스며든 그들의 정치 이념

이러한 정치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정치이념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나 ‘통치’와 뜻을 같이하는, 아니 뜻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마야어에는 거의 예외없이 정치적인 절대권력이나 강력한 대표성을 내재하는 뜻을 찾아볼 수 없다. ‘멕’(mek), ‘따난끼일’(tanank’il), ‘치치 카’(chichi cah) 등의 단어들이 정부 혹은 통치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것들인데 이들은 ‘봉사하다’, ‘돕는다’, ‘협력한다’, ‘행정 한다’, ‘좋게 하다’, ‘일을 맡는다’, ‘바르게 하다’, ‘지켜주다’ 라는 뜻의 어원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멕(Mek)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으로는 abrazar como quiera, tomar en brazos, abrazar amigablemente(Calepino de Motul, 1995: 518) 즉, 안는다, 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파생어인 멕판따(Mektantah)는 ‘tener cargo y tener cuidado o gobierno de otro menor’(Calepino de Motul, 1995: 519)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야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 도와주는 것과 통치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맡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단어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에서 보여주는 해석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키시(Okoshi)의 주장에 따르면: ‘sería evidente que el significado básico de esta voz es el de abrazar algo en el pecho, y de ahí surge el sentido metafórico[gobernar] (Okoshi, 1992: 235).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보듬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개념들이 외국인들에 의하여 ‘정치하다’ 또는 ‘정부’ 등의 말로 쓰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마을을 위한 행정담당의 개념을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 V. 할라치 우이닉을 왕(王) 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할라치 우이닉(Halach Uinic)이라는 직책을 가리켜 지금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는 세습적 성격의 마야의 왕이며 마야 계급사회의 최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고 그의 친인척을 포함한 일부 집단이 귀족사회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할라치 우이닉은 일부 꾸츠까발의 장(長)으로서 모든 꾸츠까발이 다 통합 대표 자격인 할라치 우이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꾸츠까발들은 아주 단순한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볼 수 있다(Roys, 1943: 38; Quezada, 1993: 53). 또한, 할라치 우이닉이 존재하는 꾸츠까발이라 하더라도 이미 언급하였던 바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그 인물을 가리켜 왕이나 이에 상응한 가치를 부여하는 무비판적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부를 것이다. 그들이 일부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하였던 권력과 대표성의 성격, 한계를 생각해 보면 할라치 우이닉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왕이라는 단어와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일치 사회인 마야에서 할라치 우이닉은 최고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그의 의복이 가장 화려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모든 주민들은 그에게 깃듯이 예우를 했을 것이다. 그는 생산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 결국 16세기 유럽에서 온 마야 문명의 정복자들은 할라치 우이닉을 가리켜 원주민들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에스빠냐 사람들의 마야사회를 보는 시각적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 모습만을 가지고 그를 독립된 영속적 특권을 가진 귀족계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러한 개념을 바로 잡는 일들이 각 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들어 왕이라는 말인 에스빠냐어로 'rey' 혹은 영어로 'king'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학계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VI. 결론

위에서 우리는 고대 마야의 정치, 사회 단위들이 결국은 가족단위로 결집되는 것을 고찰해 보았다. 정치기구들의 필요성과 유지 그리고 존립목적이 결국 가족장(家族長)들이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 마을 위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 실제적으로 환원되는 운용방식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체제가 작은 정치단위들의 독립적 권력과 행정을 통하여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체제들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들의 정치, 사회적 철학 속에서 나왔다는 것도 보았으며, 언어적 개념의 특이성을 살펴보고, 할라치 우이닉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대 마야사회의 사회계층(社會階層) 혹은 계급(階級)에 관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용어의 정의부터 선행되어야 하겠다. 즉, 사회계층과 사회계급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정의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러한 용어들이 자로 잰 듯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먼저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그 이야기는 필연적인 결론의 모호성을 가져오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확정적인 결론이 없다는 말로도 이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수학적인 규정에 근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더욱 풍부하고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제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인간적인 현상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른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들을 기준으로 마야 사회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과 견해들은 새롭게 인간사회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에 덧붙여 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사회과학의 영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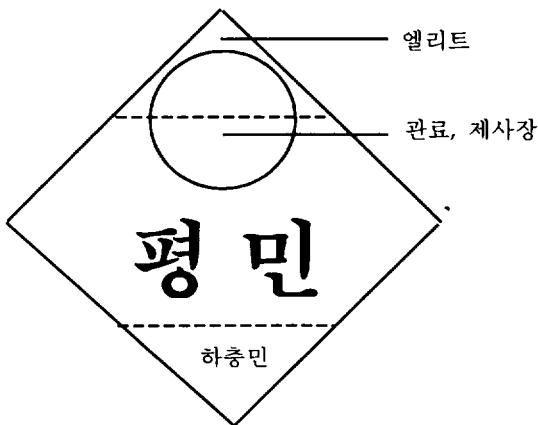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이나 계급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썩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즉 '불평등'에서 계급과 계층 구분의 시작이 가능하다. 계급은 보다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급을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불평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급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점도 완벽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그리고 폐쇄성과 의식을 들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면이 어떻게 폐쇄적으로 독점되느냐 하는 점을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개인 스스로가 타인과 나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폐쇄성은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적진 많건간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계급의 분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단을 형성하는 폐쇄성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더욱 엄격한 의미에서 -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 의식도 중요한 요소이다. 폐쇄성과 의식은 상당수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적인 특권을 폐쇄성으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특권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같은 계급간의 결혼 등을 통하여 이러한 폐쇄성을 지켜 나감으로서 외부의 특권층 진입을 막는 것만이 그들의 불평등적인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러한 점은 자연스럽게 의식이라는 구체화된 것에서 비롯되거나 많은 경우 특정 집단의 의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럼 본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마야사회의 경우를 이러한 논의에 불러들여 보자. 제일 먼저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들의 높은 물질적 평등관계를 들 수 있겠고, 애당초 사유재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특수한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정치적인 권력이다. 정치적인 힘이 특화된 일부 집단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결국 만장일치 등의 특수한 형태를 이끌어내는 마야사회 특유의 가족장 중심의 정치 운용의 묘를 확인하였다. 폐쇄성이라는 면은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동일한 참여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보자. 정치, 경제적인 특권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을 유지하려는 폐쇄성의 발달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끝으로 의식이다. 마야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가족대표들이었고 그러한 가족 대표들이 모여 만든 위원회나 중앙 정부의 우두머리 역시 실질적이건 가상이건 간에 그들의 친족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다. 이런 혈연 관계는 타인과 나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려는 의식의 발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마야 사회가 계급이라고 하는 보다 엄격한 층화(層化)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학설들이 주장하는 피라미드형 사회구조 모형을 대신하는 아래와 같은 도식화가 가능하다. 점선을 통해 폐쇄성이 철저하지 못한 각 계층간의 역동적인 면을 표시하였으며 가족단위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일반 평민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마름모 형태를 통해 나타내었다.



맨 아래의 계층에 노예 대신에 하층민이라는 용어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미 본인의 1995년 논문을 통해서 마야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하였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새로운 용어의 적용과 함께 마야 사회구조 모델을 제시한다(송영복, 1995).

한편, 이러한 독립적이고 분권적인 정치 사회 구조는 어떠한 것에서 기인하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 체제를 중심 매개로 한 각 구성원들의 평등적인 권리의 존중은 작고 독립적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단위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가족체제의 중요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단순히 모든 인류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이 아닌, 마야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치적 성격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할 때, 씨족 국가적 특징들을 유지, 발전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준다. 동서양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고도의 과학과 농업, 건축, 예술 등을 가지고 있으나 석기(石器) 만을 고집하였던 고대 마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연구와 결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야 할 차례다. 제일 먼저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문제를 보자. 이 글의 앞에서 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해두지 않은 것은 일단 이 글의 주장들이 마야의 전 시대에 걸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에 인용된 자료들의 대다수가 -고고학 분야는 빼고 - 마야의 후고전기와 관련된 사료들이다. 사실상 마야의 사료라고 한다면 후고전기의 것들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야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내용의 해독이 완전치 못하고 그나마 최고지도자들과 그들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그렇다보니 이러한 논의들이 후고전기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마야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는 500여년전



나 지금이나 식민지화와 현대화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그대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즉 외형적인 사회 형태 등은 쉽게 변화해 나가지만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으로서의 가족 중심적 운용체제는 훨씬 더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 주변의 환경적 요소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근간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그들의 주거지, 농업, 경제, 형태 등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일성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더욱 이러한 견해에 대한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씨족을 중심으로 위치 구성되는 부락의 형태는 고전기나 후고전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족 중심적인 정치 사회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은 후고전기로 보아야 하지만 고전기로의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밝힌다.<sup>6)</sup> 이제까지의 다른 연구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하에 16세기의 사료들을 마야 고전기 연구에 이용하였다. 물론 이 점에는 많은 주의가 요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외형적인 정치형태나 사회제도가 아니라 그러한 가시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는 그들의 뿌리깊은 사회운용 철학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

이 논의가 보다 집중력을 갖기 위하여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반대 의견과 사료, 연구들과의 비교나 논쟁을 가급적 피하였다. 그 예로서 개인적인 토지 소유개념이 존재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넓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몇개의 가계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이어갔던 점도 볼 수 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서 부심(部心)과 지역귀족의 형성에 관한 논의도 기존의 사회구조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보다도 이 글에 채택된 설명들이 마야 사회를 더욱 잘 설명한다고 하

6)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고전기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의 비슷한 류의 다른 논의들도 그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고전기 마야 역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한적인 것이다.

는 필자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계급구조가 엄격하게 존재하였다고 하는 견해는 충분히 그들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대립되는 이 논문의 논지와 기존의 주장 중에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 나라 사회가 계급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과 마찬가지로이다. 계급사회라고 하는 주장이나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나 그들의 관점이 나름대로 한국의 사회 현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마야사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존 학설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학설의 맹점들이 지적되기보다는 대안이나 새로운 시도 없이 묵인되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부족이 마야 사회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시각의 정체를 불러왔다. 최소한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시도라는 면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주장이 마야 사회구조 연구의 하나의 시도로써 다양한 시각의 비평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 방면의 학문적인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 필연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들만이 우리의 견해와 이해의 정도를 더욱 살찌게 하는 것이다.

고대 마야문명은 중단되지 않고 굳건히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마야인들은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단 한 권의 마야문명에 관한 학술 서적도 그들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없이 문화적 식민통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여러 가지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식민지사관 극복이 학계와 일반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즈음에, 서양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문화형태와 문명발전 단계들의 유형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마야문명의 특수성 앞에 째어 맞추어지는 현실은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메소아메리카 연구 학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문제점이라 가히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유럽의 고대아메리카 대륙 정복이후 철저히 파괴,

왜곡되어진 그들의 역사와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오해만이 아닌 사료의 부족과 왜곡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얽혀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적 환경은 하루아침에 어떤 제안이나,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결국 여러 사람들에 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있어야 하고 이의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감추고 있는 이 찬란했던 인류문명의 한편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송영복, "La dinámica de la sociedad maya: La función del sistema de familia en la organización social maya del Posclásico",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인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멕시코, 1998
- \_\_\_\_\_, "Esclavitud y Servidumbre entre los mayas prehispánicos"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 멕시코사학 대학원 석사 논문, 멕시코, 1995
- \_\_\_\_\_, 「고대마야의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현안과 노예제도」, 『라틴 아메리카 연구』, 8(1): 263-272, 1995.
- Acevedo A., Renaldo y Luz Paz Bone, Ana Maria de la, "El patrón de asentamiento de Uaxactún durante el clásico tardío en Revista", *Cuaderno de arquitectura mesoamericana*, numero 23, Facultad de Arquitectura, UNAM., México, enero,1993
- Alvarez A., Carlos, Lowe, Lynne S., "Informe preliminar de las exploraciones realizadas en el sitio cimientos de las Margaritas", Chiapas. Segunda Temporada en prensa, UNAM., IIFL., CEM, 1995.

- Arnauld, Marie Charlotte, *Representación del espacio político en las Tierras Altas de Guatemala*, Coordinado por Alain Breton, Centro de Estudios Mexicanos y Centroamericanos, Cuaderno de Estudios Guatemaltecos 2, México y Guatemala, Centro América, 1992
- Bocabulario de Maya Than*, Edición: Acuña, René, UNAM., IIF., CEM., México, 1993
- Calepino de Motul*, Edición: Arzápalo Marín, Ramon, UNAM., IIA., México, 1995
- Carmack, Robert, *Historia social de los Quiches*, Editorial Jose de Piñeda Ibarra Ministerio de Educación de Guatemala, Guatemala, Centro America, 1979
- Chase, Diane Z.,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Land of Cacao and Honey: Correlating the Archaeology and Ethnohistory of the Postclassic Lowland Maya", *Late lowland Mayas civilization*, Edition of Jeremy A. Sabloff y E. Wyllys, Andrews V. A school of American Research book, Santa Fe, 1985
- Coe, Michael D., *Los Mayas*, México: Diana, 1990
- Diccionario Maya*, Director de la Edición: Barrera Vásquez, Alfredo, Porrúa, México, 1991
- Fray Ximenez, Francisco, *Historia de la provincia de San Vicente de Chiapas y Guatemala*, Biblioteca Goathemala , Guatemala, Vols. I-III. 1929-31. .
- Freidel, David A. y Sabloff, Jeremy A., *Cozumel late Maya settlement patterns*, Academic Press Inc. Orlando, 1984
- Kintz, Ellen Rose, *The Social Organization of a Classic Maya City Cobá*, Quintana Roo, México, Tesis de Doctorado en Antropología 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New York, Mayo de 1978

- Landa, Fray Diego de, *Relaciones de las cosas Yucatán*, Porrúa, Introducción por Angel M. Garibay K. México, 1986 (Biblioteca Porrúa 13)
- Las Casas, Bartolomé de, *Apologética historia sumaria, quanto a las qualidades, dispusición, descripción, cielo y suelo destas tierras, y condiciones naturales, policías, republicas, manera de vivir e costumbres de las gentes destas indias occidentales y meridionales cuyo imperio soberano pertenece a los reyes de castilla*, Edición preparada por Edmundo O Gorman, 2 tomos, UNAM., IIA., México, 1967 (Serie de historiadores y cronistas de Indias:1)
- Lenkendorf, Carlos, *Los hombres verdaderos*, México, Siglo XXI, 1996
- Leventhal, Richard M. y Baxter, Kevin H., *The use of Ceramic to Identify the Funtion of Copan Structures Household and community in the Mesoamerican past*,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8
- López Cogolludo, Diego, *Los tres siglos de la dominación española en Yucatán, o sea Historia de esta provincia desde la conquista hasta la independencia*, Impreso por José Maria Peralla, Campeche, 2 tomos, México, 1842
- López Medel, Tomás, *De los tres elementos tratados sobre la naturaleza y el hombre del mundo*, Edición y estudio preliminar de Berta Ares Queija, (El libro de bolsillo número 1503) Alianza, España, 1990
- Márquez Morfín, Lourdes, "Paleoepidemiología en las poblaciones prehispánicas mesoamericanas" en *Revista Arqueología Mexicana*, vol.IV, Num.,22, Noviembre - Diciembre, México, 1996
- Morley, Sylvanus G., *La civilización Maya*, F.C.E., México, 1991

- Okoshi, Tsubasa, *Los canules: Analisis etnohistorico del código de calkini Tesis de doctorado, UNAM., FFL., México, 1992*
- Quezada, Sergio, *Pueblos y caciques yucatecos 1550-1580,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93*
- Relaciones Histórico - geográficas de la Gobernación de Yucatán, Edición preparada por Mercedes de la Garza y otros, UNAM., IIF., CEM., México, 1983 (Fuentes para el estudio de la cultura maya, 1)*
- Rivera Dorado, Miguel, "Las tierras bajas de la zona maya en el Posclásico" *Historia antigua de México, volumen III:El horizonte Posclásico y algunos aspectos intelectuales de las culturas mesoamericanas, Coordinador Linda Manzanilla y Leonardo López Luján, INAH., UNAM., Miguel Angel Porrúa, México, 1995*
- Rivera, Marie-Odile, *Una comunidad maya en Yucatán, México, Secretaria de Educación Pública Setentas, 1976*
- Roys, Ralph L., *The indian background of colonial Yucata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43*
- Ruz Lhuillier, Alberto, *El Pueblo Maya, México: Salvat, 1992*
- Scanborough, Vernon L., *Arqueology at Cerros, Belize, Central America, Dall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91*
- Schele, Linda y Freidel, David, *A Forest of Kings, Quill William Morrow, EU., 1990*
- Smith A. L. , *Residential and asociate structures at Mayapan, Carnegie Inst. Wash., Pub. 619, Washington, 1962*
- Thompson, J. Eric S., *Grandeza y decadencia de los Mayas, F.C.E., México, 1985*
- Vargas P., Ernesto, *El ahauna o casa real en Tulum, en Seis ensayos sobre antiguos patrones de asentamiento en el área*

*maya*, Compilador: Vargas, P. Ernesto, UNAM., IIA.,  
México, 1995

Velázquez Morlet, Adriana, López de la Rosa, Edmundo, ‘La  
religión y la ciudad: Dinámica de los patrones de  
asentamiento en el occidente de Yucatán’ en Vargas

Villa Rojas, Alfonso, *Estudios etnológicos, Los mayas*, UNAM., IIA.,  
México, 1985 (Serie Antropologica: 38)